

베이스 임해철 '50년 음악인생' 들려준다

호남신학대 제자들과 기념공연
24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한국예총 예술문화대상 등 수상



지난 1월 광주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 고(故) 김대중대통령 탄신 100주년 공연에서 노래하는 임해철. <베이스 임해철 제공>

테너 조창후(호신대 교회음악학과 교수)는 구스타프 말러의 '나는 세상에서 잊혀지고'를, 바리톤 조재경(호신대 객원교수, 전남대 출강)은 로

시니 오페라 '세비아의 이발사' 중 '나는야 이 거리의 만물박사'를 부른다.

베르디 작 '그녀는 날 사랑한 적이 없어'와 슈베르트 '여인숙', 브람스 '죽음이어, 고통스런 죽음 이어' 등은 임해철의 목소리에 실린다. 공연 중간에는 임 교수의 사회활동, 음악활동, 장기기증 등과 관련된 인터뷰, 다큐 모음도 상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임 교수는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도 들려준다. 헨델이 경제적·육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53세에 작곡했으며 1738년 런던에서 초연했다. 대중에게는 '라르고'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다.

차이콥스키를 대표하는 가곡 중 하나인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도 레퍼토리에 있다. 독일 문호 괴테의 교양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방랑시대'에 수록된 시에 곡을 붙였다.

피아노 연주는 광주예고, 호신대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린츠 안톤부르크너 주립음악대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조혜원 등이 맡는다. 국제 베르디 오페라 아카데미 등을 수료한 김민정, 이태리 로마 Santa Cecilia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박지현, 독일 뒤셀도르프 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나원진의 피아노 선율도 울려 퍼진다.

임 교수는 "큰 공연을 앞두고 13년 전 심장이식을 했을 때가 떠오른다. 여태 무대에 설 수 있음은 심장을 기증해 준 이름 모를 그 분 덕분이다"며 "이번 음악회를 심장 기증자 및 유가족분들에게 헌정한다"고 했다.

전석 조대. /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김동아 작 'healing'



박정일 작 '가족'

김동아·박정일·새나·이다에 작가

7월 21일까지 소암미술관

청년작가 4인4색 '즐거움, 그 순간'

삶의 여정에서 청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감동은 가능성에서 기인한다. 경험의 기회와 용기, 열정은 무엇에 비할 바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감도 담겨 있다.

청년작가들의 복잡다단한 감정과 삶의 모습을 그린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오는 7월 21일까지 소암미술관(관장 양동호)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 '즐거움, 그 순간'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네 명의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만난다.

김동아 작가는 즐거움을 일상의 소소함에서 찾는다. 어린이와 강아지, 꽃, 자전거 타는 모습들을 파스하고 편안하다. 부드럽고 온화한 한국화 특유의 색채는 일상의 이미지를 평온하게 담아낸다.

박정일 작가는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 지친 자신을 반겨주는 반려동물에게서 즐거움을

찾는다. 작가는 반려동물을 단순히 키우는 동물이 아니라 의인화해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낸다.

새나 작가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생명의 순환을 주목한다. '깨알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공존·환경보전·생물의 다양성을 유패하고 아귀자기하게 표현한다.

이다에 작가는 즐거움을 부귀와 복으로 형상화한다.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 청정함과 생명력을 뜻하는 연꽃과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복돼지를 차용해 행복한 유토피어를 꿈꾼다.

양동호 관장은 "오늘날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 노년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곁질, 그리고 인한 불안정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주는 잔잔한 감동을 느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전영화부터 다큐까지 '여름을 파르페'

광주극장 상영회 7월 17일까지

유리잔 속에 아이스크림, 과일, 시리얼 등을 넣은 여름 빙과 파르페는 '완전한(parfait)'이라는 프랑스 어원에서 유래했다.

광주극장이 상영회 '여름을 파르페'를 오는 7월 17일까지 펼친다. 고전 영화부터 영화제 수상작, 다큐 등을 한 번에 즐기는 '완전한 행사'를 기치로 내걸었다.

상영회의 막은 한반도 평화를 일깨우는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판문점'으로 연다. 19일 개봉하며 판문점의 과거와 현재에 얽힌 방대한 자료를 채워진 작품이다. 중저음 보이스의 박해일 배우가 다큐 내레이션을 최초로 맡아 몰입감을 더한다.

같은 날 개봉하는 '프렌치 수프'는 프랑스 대표 배우 줄리엣 비노쉬와 브누아 마지엘이 각각 전제적인 요리사 '외제니'와 그녀의 파트너이자 미식

연구가 '도맹'으로 출연한 시대극이다. 제76회 칸영화제 감독상 수상작.

로큰롤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와 그가 반한 평범한 소녀 '프리실라'의 운명을 그린 '프리실라'도 오는 26일 관객들을 만난다.

1980년대 일본 작가주의 감독의 대표작 '가족 게임'은 오는 23일(오후 2시 40분) 볼 수 있다. '가족게임'은 중학교 3학년 누마타 시게유키에게 삼류대학에 7년째 다니는 요시모토가 새로운 가정교사로 오면서 펼쳐지는 소동을 그린 작품이다. 같은 날 심대들의 위태로운 심리를 그린 '태풍 클럽'도 볼 수 있다.

28일 개봉작 '마거리트의 정리'는 수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를 11명이나 배출한 파리 고등사범학교를 배경으로 '수학'과 '성장'이라는 소재를 결합했다.

이 밖에 도쿄의 청소부 '히라야마'를 담은 '퍼펙



'가족 게임'

트 데이즈'는 7월 3일 개봉한다. 세계 3대 영화제를 석권한 거장 빔 벤더스 감독의 신작으로 그의 작품들을 통틀어 전 세계에서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했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직사는 "일찍 찾아온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엄선했다"며 "영화제 수상작, 일본 1980년대 작가주의 감독의 작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감상하고 가셔서도 좋을 듯하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국립남도국악원, '하계 미래교원 국악연수'

연수생 40명 선착순 모집

국악 선생님들을 꿈꾸는 예비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교원 국악연수'를 진행한다.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은 오는 22일까지 '2024 하계 미래교원 국악연수'에 참가할 연수생을 모집한다. 국악원 누리집 회원가입 후 '교육·체험'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선착순 40인 선발.

이번 연수는 장차 국악 선생님을 꿈꾸는 전국

음악교육과 대학생(및 대학원생), 졸업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국악 이론과 교육법 등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다.

하계와 동계 나눠 진행하며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다.(하계 연수는 7월 15일-19일 국악원에서 진행)

교과서에 수록된 남도, 경기, 서도, 제주 등 각 지역 민요 가창법을 습득할 수 있는 '민요 배우기'를 비롯해, '단소', '장구반주', '사물장구' 등 국악 실기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국가무형유

산 강강술래 이수자인 고미경과 함께하는 '강강술래' 프로그램도 있다.

이 밖에도 연수생들에게 해설과 함께 만나는 '국악공연', '온라인방' 등 지역 관광지를 탐방하는 '문화탐방' 기회가 주어진다. 셔틀버스(진도버스터미널-국악원) 등도 제공.

국악원 장악과 선난이는 "직접 전통 악기를 연주해보고, 발로 뛰면서 전통 연희를 익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전통예술 및 국악교육에 관심 있는 전국 예비 국악 선생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참가비 6만5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정찬주 소설가의 '마지막 스승 법정스님' 이야기

23일 보은사서 북콘서트

보성 출신 정찬주 소설가는 자신에게 법정스님은 마지막 스승이라고 한다. 그에게는 세 명의 스승이 있다. 사춘기 방향을 멈추게 해주신 자신의 아버지, 대학시절 곁한 문학정신을 일깨워주신 동국대 흥기삼 전 총장이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스승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승 바로 법정스님이다.

최근 '마지막 스승 법정스님' (야백)을 펴낸 정 작가가 북 콘서트를 연다. 23일 오전 10시 보은사(광산구 구촌반촌길 108번지).

정 작가는 불자와 독자들을 대상으로 법정스님을 회상하면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그와 법정스님과의 인연은 썬더서에 입사하면서 시작됐다. 스님의 원고 편집 담당자로 인연을 맺은 지 6년 만에 스님으로부터 계집과 법명을 받



정찬주 소설가

고 재가제자가 됐다.

정 작가는 이번 북 콘서트를 여는 계기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다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 버거울 정도로 힘든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법정스님의 가르침이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응원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 작가는 '광주아리랑' (전2권), '대하소설 '이순신의 7년' (전7권), '나는 조선이 선비다' (전3권), '아소까대왕' (전3권), '깨달음의 빛, 정자' (전2권), '다산의 사랑', '전강에 비친 달', '산은 산 물은 물'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